

2021 워크넷으로 코로나19 극복

취업성공 수기

어려운 시기에도 워크넷으로
취업의 꿈을 이룬 우리들의 이야기~



2021 워크넷 취업성공수기

-
목차

대상

-
당신의 자존감을 찾아드립니다.

최우수상

-
60대를 세 번 취업시킨 1등 공신 워크넷

우수상

-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나의 워크넷 취업 성공기

우수상

-
은퇴는 있어도 정년은 없다.

우수상

-
‘내일은 또 뭐하지.’ 그 고민을 해결하다.

2021 워크넷 취업성공수기

-
목차

장려상

-
조급하기보다는 재정비하는 시간으로 활용하기

장려상

-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면 길이 보인다.

장려상

-
“워크넷을 두드려라. 그러면 취업문이 열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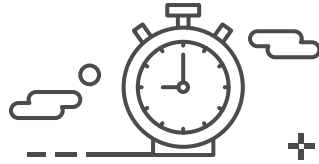
장려상

-
60세 넘은 나이에 재취업을 하다.

장려상

-
옛말 같은 칠전팔기가 2021년에도 통하다.

워크넷 취업성공수기
대상



당신의 자존감을 찾아드립니다.

2016.
안녕, 그리고 안녕.

벌써 7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입사하여 결혼과 임신을 거쳐 만삭 때까지 애정을 가지며 다녔던 첫 회사를
그만 둔 날.

회사의 배려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1년까지 15개월을 휴직했지만 주변의 도움 없이 맞벌이를
하며 돌쟁이 아기를 케어 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복직을 수없이 고민하다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은 정말 소중한 행복했지만 그와는 별개로 마음이 어찌나 심란하던지요.

분명 큰 축복이고 행복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길어지는 경력단절이 마음 한켠에 부담으로 와 닿았어요. 점점 들어가는 나이와, 육아기간이 혹시 나중에 재취업할 때 불이익으로 작용하진 않을까하는 걱정이 내내 따라 다녔기 때문입니다.

걱정과 행복이 교차하던 그때 찾아온 둘째까지, 우리 가족은 넷이 되었습니다.

2020.

새로운 도전, 워크넷 - 구직신청

두 아이가 자라 어느새 2살, 6살이 되던 무렵인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전업주부로서의 삶에 대한 회의와,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육아에 지쳐있었고 직장생활을 하며 커리어를 쌓아가는 친구들의 모습이 부럽게만 느껴졌어요.

무엇이든 해야 할 것 같았고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것도 느꼈지만, 아직은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이 눈에 밟혀 선뜻 뭔가 해볼 용기를 내지 못했던 그때.

번뜩 대학시절 취업준비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던 워크넷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무엇부터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더군요.

무작정 홈페이지에 들어가 검색창에 커서가 깜박이는 것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검색창 아래의 메뉴들을 하나하나 클릭해보기 시작했어요. 사이트를 천천히 훑어보니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워크넷 사이트에는 직업심리검사와 직업/진로에 대한 정보, 고용복지정보, 교육훈련정보, 강소기업소개, 일자리 채용정보 등 다양한 정보가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나에게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워크넷 구직신청이었습니다.

워크넷 구직신청을 이용하게 되면, 온라인 입사지원이 가능하고 취업알선도 이루어져 오프라인보다 손쉽게 정보를 접하고 정보를 접하는 즉시 이력서를 제출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더라구요.

또 신청한 구직기간동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맞벌이 가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구직활동 중 생기는 육아공백을 기관을 통해 최소화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아이가 기관을 이용하는 동안 면접 등을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고 육아와 취업 두 사이에서 막막하기만 했던 당시에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워크넷에는 각 지역별 채용정보도 보기 쉽게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 당시 나는 배우자의 발령으로 타 지역에서 이사를 온지 얼마 되지 않아 이사 온 지역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워크넷의 내 주변 채용정보 서비스를 이용하여 취업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 주변 채용정보 서비스를 이용하니 어렵지 않게 지역주변의 희망직종에 관련한 채용정보가 한꺼번에 검색 되어져 채용조건 및 근무시간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중에서 관심 있는 채용정보를 스크랩하거나 관심기업으로 설정해두고 관리할 수 있어 다양한 채용 정보들 중 나에게 맞는 구인업체를 찾아 입사지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PC가 아닌 모바일을 통해서도 그때그때 확인할 수 있어 육아를 병행하며 틈틈이 새로 올라온 취업정보를 찾아봐야 하는 상황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구인정보를 확인한 나는 입사지원을 위한 이력서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이력서를 등록하면 인재정보검색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에서도 나의 구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안내를 보고 자세히 그러나 요점만 적자 하는 마음으로 이력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처음에는 너무 오랜만에 이력서를 작성하려니 막막하더라구요.

무엇부터 어떻게 적어야 할까. 새로운 걱정이 들었지만 다행스럽게도 과거 워크넷을 이용한 적이 있던 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관리를 통해 생각보다 수월하게 서류를 작성 할 수 있었습니다.

워크넷에는 대학시절 처음 취업준비를 할 때 작성했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이미 등록되어 있었고 그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그동안의 경력사항과 변동사항을 기재하는 등 수정을 통해 현재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작성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등록하자 등록된 정보를 토대로 AI추천 일자리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하였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 정보, 내가 채용정보를 검색할 때 사용했던 직무키워드, 이력서에 작성한 희망직종, 희망지역, 희망연봉 및 입사지원을 했던 내용들이 자동으로 반영되어 비슷한 일자리에 대한 정보들이 마이페이지의 The Work AI추천에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연계되는 일자리들을 보며 아직 사람을 구하는 회사가 많이 있구나 하는 안심도 되었고 그중에서 내가 바라던 조건의 회사는 얼마나 있는지, 지원은 가능한지 비교도 해볼 수 있었어요.

또한 관련된 훈련정보를 보기 쉽게 전달해주어 실무행정에 대한 교육정보를 안내 받고 쉽게 참여할 수 있었고 심리검사 서비스를 통해 직업적성검사, 직업선호도검사 등도 받을 수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매칭 된 정보들이 다 딱 맞는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채용정보는 근무시간이 너무 길었고, 어떤 근무조건은 원하는 직종이 아니었어요. 다른 조건은 맞는데 거리가 꽤 있어 고민이 되기도 했지요.

차곡차곡 쌓여가는 채용공고를 보면서 고민이 깊어갈 즈음 워크넷에 새로 등록된 채용공고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AI추천 일자리 서비스를 통해 매칭 된 구직정보의 하나였는데 아직 어린 자녀가 있어 근무시간 조정을 원하는 나를 위한 자리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근무시간이 다른 곳보다 두 시간 적고 집에서 거리도 멀지 않으면서 원하는 연봉수준에 적합한, 맞벌이와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나에게 딱 맞는 조건의 회사였습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이 채용공고를 보자마자 워크넷에 등록해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기재되어 있는 회사메일로 발송했고 다행스럽게도 면접의 기회가 왔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면접 일을 기다리며 워크넷 취업가이드에 안내 되어있는 면접전략을 여러 번 읽어보고 예상 질문을 생각해보며 면접을 준비하였습니다. 그 덕분인지 긴장을 하기는 했지만 질문에 또렷하게 대처할 수 있었고 나는 재취업에 성공 하였습니다.

2021. 시작, ‘나’를 찾다.

어느 순간부터 나의 호칭은 아기엄마였어요.

그러나 워크넷을 만나고 나는 내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워크넷을 통해 재취업한지 어느새 1년. 내 이름으로 불리우며 자존감은 많이 회복되었고 아이들에게도 배우자에게도 더 넓은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몇 년간의 공백으로 막연하게 갖고 있던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하는 걱정도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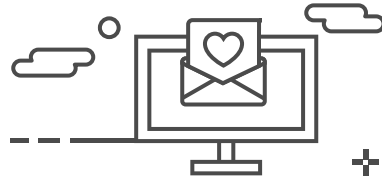
오늘도 나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가 아닌 내 이름으로 불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알차게, 또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알맞은 일자리를 추천해주고 구직신청부터 면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를 제공해 준 워크넷 덕분이에요.

도전은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도움은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해보니 어렵지 않아요.

워크넷을 통해 막연한 걱정도 두려움도 시작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른 분들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워크넷 취업성공수기
최우수상



60대를 세 번 취업시킨 1등 공신 워크넷

코로나로 인하여 기업의 투자가 줄어들고 해고 등으로 취업시장은 구인은 적고 구직자가 차고 넘쳐 취업하기가 더더욱 어려워졌다. 내 경우에는 집안에 2년 가까이 장기입원환자가 있었기에 그동안 지출이 많아져 가게를 책임진 가장으로서 취업이 절실했지만 60대 중반인 나로서는 재취업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시대에 취업을 하고 조건이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워크넷이라는 1등 공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워크넷을 적극 활용하여 '18년도 61세에 취업하여 1년 4개월의 계약기간 만료 후, '20년도 중반인 코로나 시대에 어렵게 재취업과 이직에 성공하게 된 나름의 과정을 일부 기술하여 워크넷을 보시는 분들에게 저의 취업성공수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워크넷과 만남, 활용의 시작

공개경쟁을 통해 중소기업 2개 업체와 공기업 2개 업체에서 근무했었다. 마지막에 근무한 공기업에서 부장으로 명예퇴직하고 계약근로를 완료한 `60세인 `17년 말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준비하면서 워크넷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18년 1월부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과정으로 워크넷을 활용하였기에 소극적으로 이용하는 편이었다.

`18년 1월과 `19년 11월에 「워크넷-직업·진로-직업심리검사-성인용심리검사」 사이트에서 직업선호도검사S형(개정)을 각각 했었다. 재미있는 사실은 `18년 초에 흥미코드는 CR에 E, I, S형 순으로 나왔는데 `19년 11월에는 EC(진취형 관리/.과제지향, 관습형 동조/자료지향, 탐구형(I) 사고/ 아이디어 지향 점수가 사회형 순으로 점수가 높았다. 이는 아마도 공기업에서 퇴직한 처음은 규정대로 하는 것이 최우선인 생활방식이 몸에 배었다가 계약직으로 일한 이후에는 관습형 점수가 다소 낮아졌다는 흥미로운 현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외에 `19년 `12월~`20년 3월까지 중장년 직업역량검사, 구직준비도 검사, 직업가치관검사, 창업적성검사를 했는데 이 결과조회를 는 지금도 할 수 있어 매우 유익하다. (*청소년 심리검사 실시 코너도 있으며, 각자 자신의 연령에 맞는 심리검사를 해보시면 판단 자료로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워크넷을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눈높이를 낮추어 임금은 기존 공기업에서 받던 1/3 정도로 생각하고 내 경력과 기술자격 등에 적합한 일자리 모집에 지원하려 했으나 생각보다 구인공고가 적고 있는 경우에도 경쟁률이 보통 10:1 정도여서 생각보다 조기 취업이 쉽지 않았다. 뒤늦게 대안으로 워크넷에서 취업뉴스와 공고내용을 보다가 전기기능사나 전기기사가 있으면 공동주택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워크넷에서 구직자 훈련과정을 찾아보게 되었다.

○ 구직자 훈련과정 지원하기

실업급여기간이 7개월 정도 남은 `18년 2월에 전기기능사와 전기기사를 응시하기로 결정하고 전기기능사 필기교재를 보았더니 15일 정도면 혼자서 독학하여 필기합격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어 접수 사이트를 방문해보니 응시자가 많아서 인근지역의 2개월내 응시과정은 이미 마감되어 응시가 불가능하였다. 전기기사는 혼자서는 어렵다고 생각하여 워크넷 「워크넷-훈련정보-구직자 훈련과정」 사이트 (* 본 취업성공수기 성과 취업수기를

보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 이용 당시와 달리 워크넷이 업그레이드되어 있기에 이하 모두 현재 워크넷 사이트를 기준으로 작성함)를 검색하였다.

위 사이트에서 ‘전기기사’를 검색하여 필기과정을 찾아서 온라인 수강신청을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구직자) 과정을 선택하여 찾아보고 나서 거주지의 지방고용노동사무소에 가기 전 Action plan을 만들어서 갔더니 담당자가 이렇게까지 해온 사람은 처음 보았다고 하였다. 실업급여기간에는 일부 자부담이지만 심사를 거쳐 승인 받아 `18년에는 집 주변에 도서관이 없어서 매일 1시간 정도 거리의 도서관에 걸어가서 전기기사 필기과정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실업급여 인정 활동을 위해 워크넷을 검색하던 4월의 어느 날, 마감일이 불과 1주일도 남지 않은 모국립대학교 연구센터 신축공사 감리원 구인광고를 보았다. 내가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 있는 감리원(월280만원, 계약기간 1년 4개월) 1명의 공고를 보게 되었다. 그제서야 알림이 오는 것이 귀찮아 구인정보에 대한 알림 신청을 하지 않아 하마터면 취업정보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알림정보 「워크넷-(12시 방향) 내일레터)」를 신청하고 1주일에 3번 정도 접속하여 구인정보를 놓치지 않으려 노력하기 시작했다.

워크넷 덕분에 합격한 61세의 첫 번째 재취업

연구센터 신축공사 감리원 모집으로 1차 서류전형방법이 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이었다. 당시는 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방식이 시작된지 1년 정도인데다 워크넷에 공고 나온 중소기업 대부분은 NCS 방식을 거의 하지 않고 있었던 때라 워크넷에는 이력서와 자소서를 스토리 방식으로 구성하여 등록해두었기에 매우 난감하였었다. 기존 방식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서류전형에서 탈락될 상황이어서 네O버에서 정보를 찾아 보았지만 NCS 기반 블라인드방식이 `17년에 시작된 탓인지 정보가 별로 없었다. 마감 5일을 앞두고 마음은 초조하여 혹시나 하고 워크넷 창에서 ‘NCS’를 입력하고 검색했더니 상세한 정보가 나와 있었다. (※ 현재 「워크넷-직업·진로-취업가이드-NCS 기반 능력중심채용」 사이트에 특징과 프로세스에 대한 핵심내용 등이 소개되어 있고 NCS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통해 준비자료에

가면 상세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음)

관련 내용을 복사하여 파일로 저장해두고 출력해보니 19쪽이었다. 워크넷 덕분에 NCS기반 블라인드 채용방식의 서류전형에 적합한 이력서와 자소서외에 각종 서류를 어려움 없이 작성하여 응모하였다. 얼마 후, 서류전형 합격통지와 함께 3대1의 면접일자 통보를 받았다. 다시 힘을 내어 워크넷에서 면접요령에 관한 자료를 찾고 인터넷을 검색하여 보충정리하니 13쪽이 되었다. 이미지 메이킹, 인사 등 각종 면접요령관련 자료를 복사하여 저장해두고 출력하여 혼자서 예행연습을 상황별로 해보고 예상질문 등도 작성하여 연습하였다. 면접장에 가보니 나보다 젊은 30대와 50대의 경쟁자가 있어 긴장한 가운데 무사히 면접을 마치고 최종합격 통보를 받아 워크넷 덕분에 61세에 감리원으로서 첫 출발을 하게되었다.

업데이트와 업그레이드 하기

스토리 형식으로 작성한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를 워크넷을 통해 NCS기반 블라인드 채용 공모 요강에 맞게 전면 수정하여 업그레이드 한 후, 채용트랜드나 채용정보, 취업성공수기를 틸틈이 읽으면서 나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부족한 점이나 수정해야할 부분을 업데이트해 나갔다. 취업성공수기를 통해 느낀바 있어 '04년에 취득한 컴활2급, 아래아한글 워드프로세서 2급외에 오피스-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자격증이 있지만 '19년 12월에 컴활 1급 필기와 워드1기 필기를 준비하여 '20년 1월에 필기합격을 하고 실기접수를 하고 준비하던 중 코로나로 도서관도 휴관하고 실기 시험도 중단되어 최종합격을 미룬채 구직활동을 하고 취업하였지만 필기와 실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몰랐던 새로운 기능을 습득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워크넷은 정보의 바다

바다를 항해하려면 GPS와 등대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목표까지 도달해야하는 것처럼 워크넷도 19세~69세까지 주요 대상으로 각종 정보가 많았다. 따라서

평소에 자주 워크넷을 둘러보고 나에게 적합한 정보를 찾아내서 맞춤형 활용을 하여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PC에서는 즐겨찾기를 해두고, 휴대폰에는 워크넷 앱을 설치(*휴대폰 네O버 창에서 「워크넷 앱」 입력하고 클릭하여 설치하면 됩니다. 잘 안되면 주변에 도움 요청)하여 대중교통으로 이동시와 휴식시간에도 휴대폰 앱을 통해 워크넷에 쉽게 접속하여 워크넷의 각종 정보를 찾아보거나 검색하여 활용하였다. 상세한 내역이 궁금하면 휴대폰 아래쪽으로 가서 5시 방향의 'PC버전'을 클릭하여 보거나 PC에 접속하여 큰 화면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거나 찾아보았다. 평소에 이러한 워크넷과의 친숙해지기 노력 덕분에 구인공고 내용에 맞추어 이력서와 자소서를 업데이트하여 지원하였다. 각종 다른 정보도 활용할 수 있었다.

마감이 지나도 면접보러 오라는 연락이 없는 경우에 「워크넷-(2시 방향)마이페이지-입사지원관리-알선/입사지원 내역」 사이트에 가서 지원한 업체를 클릭하여 입사지원 현황통계 정보를 다시 돌아보고 나름대로 분석하여 다음 지원시 참고하였다. 이런 과정을 몇 번 하면서 워크넷 지원자 정보를 다시 검색하여 분석해보니 어느 정도의 눈높이를 고용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지원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서 보다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위해 워크넷에 게시되는 잡000, 인000, 사00의 구인공고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채용담당자 정보를 보고 가급적 메일로 하고 메일을 보고도 이해가 잘 안되면 휴대폰이나 사무실전화번호를 보고 전화하여 문의하였었다. 예를 들어 합격시 근무하게될 장소가 공고와 다른 경우도 있기에 지원하기 전에 확인하고 네O버 지도로 현장주소를 검색해보고 지원하였었다.

이력서와 자소서를 지원하기 전에 워크넷상에서 기업의 채용정보 바로 오른쪽에 「기업정보」를 클릭하여 재무정보를 확인하여 회사의 현황을 보고 지원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최근의 워크넷상 기업정보는 `18년도와 `20년도 이용했을 때보다 현재는 정말 깜놀할만큼 정도로 잘 업그레이드되어 있다.

취업성공수기를 쓰기위해 워크넷을 접속해서 사용해보니 워크넷 각종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업그레이드되어 편리해졌다. 예전에는 근무지역도 3개 정도로 제한하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아래처럼 내일레터 설정시 근무지역 전체로 설정할 수 도 있어 제한이 없거나 희망시 10개 지역까지 설정하도록 하여 희망 근무지역을 원하는데로 등록하고 키워드 관련 일자리

정보가 매일 아침 8시에 메일로 오니 휴대폰에서도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다.

워크넷에서 내일레터 신청시 키워드를 예를 들어 ‘소방감리’를 설정하여 두면 내 메일함에 온 내일레터 내용 중 왼쪽의 내일레터에서 ‘소방시설설계원’을 클릭하면 휴대폰에서도 바로 상세한 채용정보를 볼 수 있다.

- 취업성공수기를 읽으면서 구청, 시청, 도청 홈페이지에도 구인광고가 있다는 것과 폴리텍대학의 훈련과정이라는 정보도 알게 되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다

「The early bird catches the worm.(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다)」라는 영어속담처럼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점심 도시락을 직접 싸면서 물 2병을 함께 준비하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 옆에 최근 개관한 도서관에 08:55까지 가서 09:00에 좋은 자리와 PC사용을 예약하고 1일 30분 정도씩 워크넷 홈페이지 전체적인 내용을 조금씩 보면서 필요한 정보와 검색해야할 부분을 찾아보았다. 도서관에 가면 PC를 1일 3시간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필요시 스캔과 출력도 가능하여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파일로 정리해두고 나와 관련된 구인공고에 메일로 지원하였다. 가까운 도서관이 휴관이면 걸어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인근의 도서관에 갔다. 취업정보도 일찍 알게되면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지원할 수 있기에 내일레터 같은 알림정보를 활용하는 것 외에 매일 워크넷을 방문하고 평소에 워크넷의 여러 가지를 알아두어 필요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어 도움이 되었다.

코로나시대 취업시장에서 워크넷은 등대와 GPS 같은 존재

등대는 바닷가나 섬 같은 곳에서 밤에 다니는 배에 목표, 뱃길, 위험한 곳 따위를 알려 주고 GPS가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처럼 취업시장에서 워크넷을 잘 활용하거나 취업정보를

분석하여 상황에 맞게 대응한다면 등대와 GPS처럼 자신의 현재상황을 알고 취업이라는 목표를 향해 도달할 수 있다.

희망은 어두운 삶에 빛을 밝혀 주는 등대와 같다. 때로 힘들고 외롭다는 생각이 들 때면 워크넷의 취업성공수기를 다시 읽어나갔다 「워크넷-직업·진로-취업가이드-취업성공수기에 취업성공수기」에서도 특히, '15년 취업성공수기 당선작 '취업성적 32전32패 워크넷 알고나니 중견기업 취업승리'외에도 경단녀의 취업성공수기와 다른 취업성공수기를 읽고 희망이라는 글자를 가슴에 품고 자신이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고용주 입장에서 돌아보았다. 코로나로 인하여 취업이 더욱 어려워진 '20년 5월초 실업급여가 끝나가고 초조한 기분이 들 때는 '15년 취업성공우수사례집을 다시 읽어보고 다른 대안도 생각하면서 취업을 준비해 나갔다.

위기를 기회로-코로나 시대 취업한 전략과 전술

코로나가 발병하기 전인 수도권소재 '19년 5월 모대학 연구센터 신축공사 감독을 하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 지인으로부터 현재 받는 월 280만원에 차량운행포함 교통비로 월 50만원을 주겠으니 오라고 하였지만 계약기간 약속이 있어 이직을 사양하자 2020년 3월에 투입되는 모건설현장에 와달라고 약속받았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끝난 '19년 11월부터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른 현장에 19년말 취업지원하면서 면접연락이 왔는데 안 가면 실업급여 받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희망급여를 높게 써서 연락을 받지 못했다. 지인으로부터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20년 2월말이 되어도 소식이 없어 전화해보니 엉뚱한 핑계를 대며 다른 사람을 고용했다는 것이다.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내가 고용주가 아니니 어쩔 수 없었다. 아마도 베이버부머의 정년퇴직, 40~50대의 희망퇴직, 일부기업과 자영업자나 여행사 등의 휴직, 해고, 폐업외에도 1월말에 국내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여 기업이 고용을 축소하거나 신규사업을 연기하는 등으로 단 몇 개월 사이에 전문기술직 경력자도 많아져서 이제는 경력자도 손쉽게 저임으로 채용할 수 있는 취업시장의 변화 때문인 것 같았다.

부랴부랴 3월에 희망연봉을 낮추고 내 기술자격과 경력에 맞는 구인광고를 살펴보았으나 모집도 거의 없는데다 공고난 모집공고에 이력서와 자소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하였으나 면접을 보러 오라는 곳이 없었다. 그래서 대안으로 경비직도 검색하고 알아보니 이제는 경비직도 경쟁률이 매우 치열해졌다. `18년도만 해도 60대 초반의 나이에 주거지 주변의 경비직은 쉽게 구할 수 있었으나 코로나 한파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기업도 해고 및 폐업 등의 영향에다 베이비부머의 계속적인 채용시장에 증가로 경쟁률이 나날이 치열해져갔다. 일례로 거주지역 인근에 파트타임 경비직 일자리에도 워크넷상 30~100대1의 경쟁률에 30~50대의 경비직 지원자도 많았다. 취업시장은 코로나 발생하기 전인 `19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마음가짐을 다시 하고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취업시장에 임해야할지 생각하게되었다. 면접보러 오라는 연락이 없어 내가 지원한 업체에 대한 정보를 다시 돌아보고 눈높이를 더욱 낮추어 지원하였으나 연락 자체가 없어 다른 대안을 생각하였다.

현재 소유한 전공관련 특급 기술자 및 감리원 자격외에 사무능력(`04년경에 취득한 컴활2급, 워드2급, 오피스-워드, 파워포인트, 엑셀)과 최근 경력을 가지고 눈높이를 낮추어 지원하여도 4월 중순까지 면접보러 오라는 연락이 없었다. 실업급여가 끝나고 5월말까지도 취업이 안될 경우를 대비하여 워크넷 취업성공수기와 워크넷 정보를 통해 아래의 A, B 2개의 대안도 세워두고 지원할 마음가짐을 가졌다.

A안 : 폴리텍대학 훈련과정(현재기준 한국폴리텍대학-교육훈련과정안내-비학위직업-훈련과정-신중년특화과정 사이트)

입학생 특전

- 교육비, 실습재료비, 기숙사비, 식비 등 전액 국가 지원
- 수당 및 교통비 지급(해당자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검정 필기시험 면제(주간 1년과정 70%이수자에 한함)
- 수료 후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실시

B안 : 폴리텍대학 훈련과정(현재기준 한국폴리텍대학-교육훈련과정안내-실업자과정-중장년재취업과정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살펴보고 스크랩 해두면서 지원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평소에 워크넷을 자주 방문하여 워크넷상의 각종 정보를 보고 자신에게 적합한 정보를 얻고 나름대로 분석하고 지원을 하면서 또한 대안을 세워두니 불안감이 덜하였다.

다행히 실업급여가 끝난 `00년 5월 중순에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하였다. 취업한 직장에서도 1개월이 되어도 근로계약서 체결도 없고 1개 현장을 더 맡으라고 하면서도 연봉 추가 제시금액도 없어 이직을 위해 워크넷 공고를 통해 다른 곳에 이력서와 자소서를 지원했더니 면접보러 오라는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업체와 면접 후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며칠이 지나서 집과 가까운 현장을 둔 다른 업체에서 오라는 연락이 왔지만 사양하고 약속을 지키면서 근무하고 있다. 무엇보다 상호간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예전엔 미처 몰랐다

김소월님의 시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가 현실이 될줄 이전에는 정말 몰랐었다.

`16년에 공기업에서 감독할 때 트레이 공장검수를 가보니 외국인 근로자가 지게차 운전하고 있었는데 공장에 지게차가 3대나 있었다. 서류검사 대기하면서 사무실 현황을 살펴보니 경비원인데 전기기능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지만 나는 기술자격증과 사무능력 자격증(워드, 컴활, 오피스)도 있어 그러려니 하고 지나쳤는데 바로 그것이 내 취업인터뷰에서 현실이 될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첫째, 코로나시대 `20년 5월의 어느 날 첫 면접에서 담당 본부장이 전기분야 자격증도 있느냐고 물었다. 물론, 최종 합격은 하였지만 나중에 알고보니 합격요건이 희망연봉에 최저연봉 수준을 내가 제시하였기 때문이었다. 감독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알게되었는데 다른 분이 최근 해당분야 감리경력은 없지만 나와 달리 해당분야특급감리원 자격증외에 퇴직 후에 소방기계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연봉은 더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둘째, 코로나가 지속되어 가고 이직을 위한 6월말 다른 직장 면접에서 인사담당부장이 전기분야 자격증 있느냐고 물었다. 젊었을 때 직장다니면서 나의 전공분야가 광범위하여 자신의 해당분야가 아니면 전문가 소리는커녕 아마추어와 같은 초보지식이 될 수 있을 정도

이기에- 전기기사나 전기기능사에 대한 관심은 있었지만 실제 필요하다는 생각을 거의 못했었다. 전공관련분야 2개분야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만 어차피 기술수당은 1종만 주는데다 특정분야만 전문적으로 하다보니 필요성을 못 느꼈었다. 그런데 면접을 보는 현장에서는 1인 다기(多技)가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다기가 아니라 연관분야의 자격증인 1인 다기를 원한다는 것을 예전엔 미처 몰랐다! 아~ 옛날이여~, 이선희님의 노래가 현타로 왔다. 이것을 진작 알았다면 최소한 '18년 초에 바로 전기기능사 필기 합격하여 실기학원 다닐 때 워크넷상의 배움카드 지원을 적극적으로 했을터인데라는 아쉬움이 남았다.

코로나시대가 아니라도 고용주 입장에서 주간경비직 일자리도 전기기능사(기사)나 지게차, 위험물취급, 안전 자격증이 있으면 보면 따로 고용하지 않고 추가 수당만 주면 되기에 선호한다는 것을 예전엔 미처 심각하게 느끼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코로나시대 건강관리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그러나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는 비스마르크 명언처럼 건강하지 않다면 결코 취업할 수 없기에 코로나시대에 맞는 건강관리를 하면서 취업을 준비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이전에는 빠르게 걷기운동을 1일 1시간 정도 하였지만 최근에는 우편배달부가 건강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빠르게 걷기를 사람 통행이 적은 시간대를 이용하여 마스크를 쓰고 매일 실내 자전거타기 포함하여 평균 1만보 이상하고 있다. 아울러 생물진화론을 확립한 영국의 찰스 다윈(Charles Robert Darwin)이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하다.’ 한 것처럼 코로나시대에 취업과 현재 근무하는 계약기간종료시 재취업을 위해서 맞춤형 건강관리인 채소를 포함한 균형있는 섭생으로 장내 저항력 강화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근력운동과 함께 심부체온을 올리는 운동을 병행해왔다.

인터뷰(면접) 준비와 요령

워크넷에선 면접관련 정보를 찾고 취업에 성공한 선배들의 취업성공수기를 통해 간접적인 면접 대처법도 얻으니 면접보러 갈 때 불안한 마음이 줄어들었다. 취업공고에서 근무현장에 대해 네O버 지도를 통해 교통수단과 접근로를 찾아보고 갔다. 면접시 근무지가 집에서 먼 경우 대응법으로 현장 인근의 고시원과 원룸을 사전에 알아보고 출퇴근문제에 대해 질문시 적절하게 대처하였다. 또한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할 때에는 자신의 강점으로 사무능력 자격증과 특히 사내강사로서 사내외 강의 경험이 있어 파워포인트 작성도 잘하여 각종 보고서 작성도 혼자서 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이직하는 경우 면접시에는 정당한 사유도 구체적으로 답하였다.

몇 번의 면접을 통해 `18년초에 졸업하면서 MBA(경영학석사) 성적우수상 기록보다 현장에서는 법에서 정한 기술자 자격증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앞으로 계획과 제안

앞으로 유O브를 배워서 워크넷 사용법, 이력서, 자소서 작성, 인터뷰 등을 통해 작지만 사회봉사에 참여하려 한다. 또한 코로나가 종식되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공기업에서 사내 CS, 혁신, 윤리 강사로 회사 내·외에서 강의했던 경험을 살려 1개월에 한 번 정도 반차를 사용하여 워크넷 사용법, 이력서, 자소서 작성, 인터뷰, 질의응답의 무료강의를 했으면 희망한다.

워크넷 담당하시는 분이 취업성공수기 공모에서 전체 대상과 최우수상외에 장려상은 청년, 여성, 장년부로 균등하고 수기도 이렇게 분류하여 많은 사람이 더 참여하고 더 쉽게 공감할 수 있기를 희망해본다.

희망의 메시지

2021.3.29.일자 뉴스에 엘런 "미 경제 2022년 완전고용 복귀"라고 보도되었다. 미국경기와 함께 국내경기도 회복되어 취업시장도 현재보다 훨씬 더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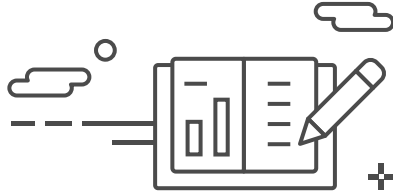
일부 몇몇 국내업체 담당자로부터 '22년 중반에 일부 직종들은 지금과 달리 구인난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60대에 워크넷 정보를 활용하여 처음 취업과 재취업 및 이직을 하는 과정의 면접에서 느낀 사항은 현장 인사담당자가 면접 보기를 원하거나 최종합격 통보하는 기술분야 인력은 희망연봉 + 해당기술자격+ 최근 경력을 고려하여 채용한다는 것을 느꼈다.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 중에 사무분야 지원이 아니면서 전문기술이나 자격증이 없으시다면 워크넷 뉴스에도 게시되었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019~2020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종목 중 상위 20개를 분석한 결과 지게차운전기능사와 한식조리기능사 자격 종목이 2년 연속 1~2위를 유지한 가운데 전기기능사는 6위를 차지할 정도로 응시인원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뉴스를 눈여겨 보시거나, 인기 20개 선호 자격증 중 자신이 관심있는 자격증에 도전해보시길 권유한다. 대부분의 전문분야 기사 자격증은 관련분야 학력이나 경력이 있어야 하지만 기능사는 학력과는 무관하고 사람에 따라 워크넷이나 지자체 등 자격취득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루이 파스퇴르의 'Chance favors only the prepared mind.(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말처럼 이력서와 자소서를 NCS블리인드 방식이나 취업공고내용에 맞게 이력서와 자소서를 업그레이드 또는 업데이트하면서 면접요령까지 준비하면서 눈높이 지원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솔로몬의 일화로 다윗 왕이 전쟁에서 승리한 뒤 돌아와 궁중의 보석 세공사에게 자신을 위해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라고 명령하면서 반지에는 "내가 승전해 기쁨이 넘칠 때 교만하지 않게 하고 절망에 빠졌을 때 좌절하지 말고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글귀를 적어 넣으라"고 하자 세공사는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고 나서 좋은 글귀가 생각나지 않자 고민 끝에 지혜로운 솔로몬 왕자를 찾아가 묻자 솔로몬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This too shall pass away)"라고 했다고 한다.

위 명언처럼 이 취업성공수기를 보시는 분들이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서 계획을 세워 취업에 성공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칩니다.

워크넷 취업성공수기
우수상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나의 워크넷 취업 성공기

Prologue

얼마 전 침대맡에 놓여있던 한 권의 책을 우연히 집어 들었다. 트렌드 코리아 2021이란 책이었는데, 이 책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다. ‘인류의 연대를 예수를 기점으로 BC(Before Christ), AD(Anno Domini)로 나누듯, 이제는 코로나 사태를 전후로 BC(Before Covid), AD(After Disease)로 나뉘야 한다’.

지금부터 나를 벼랑 끝까지 몰고 갔던, 지난 2020년을 돌이켜 보려 한다.

Before Covid

나는 우리나라에서 잘나간다는 큰 무역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했다. 같은 업종에서 15년 가까이 일하면서 이직할 때마다 내 몸값은 계속 올랐고, 사회생활의 목표였던 ‘연봉 1억’에 점차 다가가고 있었다. 난 자신감에 차 있었고, 무엇도 두렵지 않았다.

2019년 12월로 기억한다. 주변에서 ‘우한 독감’이란 말을 입에 담기 시작했다. 중국에서 시작된 이 바이러스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으리란 것을 깨닫지도 못한 채, 나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우리 팀의 매출실적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2020년 4월, 코로나는 우리 회사를 뒤흔들기 시작했다. 코로나로 인해 미국 수출길이 막혀버린 회사는 자구책으로 미친 듯이 구조조정을 시작했다. 어느 날은 내 옆 팀이 하루아침에 사라졌고, 또 어느 날은 나와 친하게 지내던 회사 동료들이 책상을 비웠다. 누구보다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했기에 난 아닐 것이라 믿고 싶었다. 하지만 어느 날 부장이 날 조용한 회의실로 불렀다. 불길한 예감은 적중했고, 그날부로 단 몇 개월 치의 위로금을 받고, 난 회사에서 잘렸다.

Intermission

15년이란 시간을 쉬지 않고 일했기에, 처음에는 이 시간을 재충전의 기회로 삼아 지친 몸을 추스른 후, 다른 직장을 구하자고 생각했다. 그동안 꿈꾸지도 못했던 늦잠도 자고, 집 앞에 있는 텃밭도 가꾸고, 가족들과 그렇게 행복한 한 달의 시간을 보냈다. 새로운 직장에서 일할 생각에 설레기도 했다. ‘이제 위로금도 떨어져 가는데, 이력서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직장을 찾아볼까?’ 이때까지만 해도 난 자신감에 차 있었다.

After Disease

내가 좋아했던 웹툰, 미생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회사 안은 전쟁이지만, 밖은 지옥이다.’ 난 다시 한번 전쟁터에 뛰어들고 싶었지만, 나의 오랜 경력과 많은 나이는 코로나로 인해 더욱

좁아진 인력시장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다른 직종으로도 눈을 돌려 보았지만, 내 조건을 수용해주는 곳은 없었다. 그리고 2020년 10월, 힘들게 버티던 아내마저 결국 코로나로 인해 실직하게 되었다. 내 미래는 더는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 이젠 가족의 생계와 미래가 위협받고 있었다.

Worknet

2020년을 떠올리면 벼랑 끝에 혼자 서 있는 사람의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그만큼 힘들고 괴로웠던 한 해로 내 기억에 남은 것이다. 나는 어떤 일이든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시도해보자고 마음을 먹었다. 그간 무역업무를 하면서 쌓아온 영어 실력을 바탕으로, 교육청에 등록해 과외를 시작했고, 주말에는 물류 상하차 일용직으로 부족한 수입을 메꿔가며, 일할 수 있는 곳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인터넷상에서 유명한 민간 취업 포털사이트들을 통해서는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일자리를 집중적으로 세세하게 검색할 수가 없었다. 그러던 중 우리 지역 내 취업 정보와 취업 교육프로그램이 있으면 문자를 보내주던 워크넷이 떠올랐고, 난 바로 접속해서 구직신청을 완료한 후, 내가 사는 도시 전역의 일자리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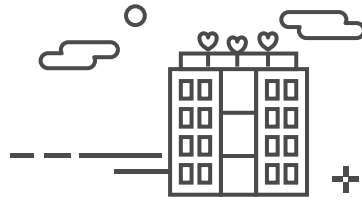
The End of Tunnel.

실직한 지 거의 1년이 되어가던 2021년 2월 말이었다. 그날도 워크넷을 검색하던 중, 한 곳이 눈에 띄었다. 집에서 멀지 않은 거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몸담았던 무역업의 특성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업무였다. 바로 이력서를 작성해서 서류 지원을 했다. 며칠 후 면접 요청 전화를 받게 되었고, 늦은 밤까지 자기소개부터 회사 관련 정보까지 검색하면서 마지막 끈을 잡는 심정으로 미친 듯이 면접 준비를 했다. 다행히 면접 결과도 좋았고, 아내와 나는 잠시나마 그동안 힘들었던 기억을 잊고 기뻐할 수 있었다. 비록 기간제이긴 하지만 다시 일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생계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는 점에서 워크넷은 나에게 큰 구원이 되었다. 또한 지금까지도 워크넷에 감사한 점은 내가 등록한 정보에 맞는 구인정보가 뜨면 한번씩 워크넷 담당자분이 전화로 직접 연락도 해주었다는 점이다. 이런 세심함 덕분에 ‘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를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마음의 큰 위안을 얻을 수 있었다.

나는 아직도 여전히 코로나 이후의 긴 터널을 지나는 중이다. 우리 가족은 코로나 이전의 생활로 완전히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며 현실에 절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중이다. 어둠 속에 있는 우리 가족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 워크넷! 워크넷이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자리가 간절한 구직자들에게 앞으로도 빛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워크넷 취업성공수기
우수상



은퇴는 있어도 정년은 없다.

나는 대기업에 취업하여 39년간 다니면서 우리나라 노동법에 보장된 60세 정년은 당연할 것으로만 생각하였다. 하지만 나의 직장이 아웃소싱 되고, 명예퇴직이 나에게 해당되는 현실을 똑똑히 체험하였다.

그러나 평소에 준비해 놓았던 자격증과 워크넷의 도움으로 56세 나이의 벽을 허물고, 재취업에 성공한 사연을 이 수기에 담아본다.

지금시대에서 자격증과 기술은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라고 확신한다. 평생직장을 구하기는 무척이나 힘이 들지만 평생 직업을 구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만은 않다고 생각한다.

39년 재직 후 부득이 명예퇴직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H중공업에 취직이 된 후 19년간은 산업현장에서 전기시설물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후 기술교육원으로 자리를 옮겨 20년간 전기분야 기술연수생 양성교육과 재직사원 직무향상교육을 담당하는 직업훈련교사로 근무를 하였다.

19세에 취업되어 수십 년을 한 직장에 다니면서 틈틈이 자기개발에 시간을 투자하여 국가공인기술자격증 80여개를 취득하였고, 고졸학력을 극복하기 위해 40세에 학점은행제로 학사학위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OO대학교 대학원에 늦깎이 진학하여 내년 초에는 석사 학위를 받는다.

2013년에는 회사의 추천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직업능력개발 유공자에 선정되어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하였다. 같은 해 고용노동부 주관 스타훈련교사에도 선정되어 H 중공업에서는 제법 잘나가는 사람에 포함되어 주변에서“당신은 스펙이 좋아 정년까지는 무난하겠네”라는 말을 많이 듣고 살았다.

그러나 어느 날 명예퇴직이 나에게 해당되었고, 이것으로 인하여 정년을 미처 못 채우고 회사를 그만둘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2020년 7월말 휴가 직전 팀회의에서 기술교육원이 아웃소싱 된다는 계획서가 발표되었다.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에 팀 전체가 망연자실하였다. 너무나 큰 충격에 사실이 아니기를 무척이나 바랐지만 현실은 냉정하였다. 이후 미래에 대한 불안한 생각에 빠져 멍한 행동과 불면증이 생겼고, 결국 우울증으로 진행되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여름휴가가 끝나고 아웃소싱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나는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기기 위해 여기저기 알아보았다. 그러나 인력 재배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무기술직 관리자의 신분으로 근속이나 나이에서 한참 차이가나는 후배들 속에서 도저히 버틸 재간이 없었다.

그래서 결국 오랜 세월 정들었던 직장에서 정년 4년을 남겨둔 채 퇴사를 하였다.

준비된 자격증과 워크넷 구직활동

다행이 나는 준비된 자격증이 많아서 다른 동료직원들 보다는 그래도 조건이 나은 편이었다. 회사의 필요성에 의해서 전기기능장과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으로 사외 시설물에 전기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자로 법적선임이 되어 별도의 경력을 10년 정도 쌓을 수 있었다.

나는 재취업을 위해 퇴직 즈음에 그 동안 말로만 듣던 워크넷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정식으로 워크넷 양식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난 후 나의 전문분야인 전기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자 키워드로 매일 매일 워크넷을 검색하였다.

관련 직종에 대한 채용공고를 보고 10여 곳의 기업체에 이력서를 넣어 보았으나 연락이 없어 각 기업체 인사담당자와 통화를 시도해본 결과 한사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였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또 다른 구인업체에 이력서를 넣고 기다렸다.

취업알선장 도착과 채용면접

퇴직 후 1주일 정도 지날 무렵 워크넷을 검색하니 경상북도청에서 보낸 취업알선장이 도착하였다. 내용은 영천시 OO읍에 소재하는 (주)OOOO에서 전기안전관리자를 급히 구인하니 그쪽 인사담당자와 취업상담을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달라는 내용이었다.

너무나 반가운 소식에 다음날 바로 취업알선장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인사담당자와 통화를 하였는데 빠른 시일 내에 면접을 보자고 하여 면접 일정을 잡았다.

면접장에 직접 참석하신 사장님께서 전기기능장 자격증 소지자의 채용이 급하니 다음 주부터 당장 출근, 직급은 부장, 임금은 회사 최고수준으로 책정하고, 70세까지 부탁한다고 나에게 당부까지 하셨다.

더 발전된 인생2모작

2020년 11월 16일 설레이는 마음으로 첫 출근하여 오늘까지 벌써 5개월이 지나간다. 전기시설물의 전기안전관리와 소방시설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책임지며 70세까지 다니는 것을 목표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있다.

(주)OOOO는 자동차 배터리 폐납을 활용하여 재생납을 생산하는 리사이클링 전문 회사로 신용등급은 B, 종업원수 53명에 연간 8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유망 중소기업이다.

지금 돌이켜보면 명퇴금도 따로 받았고, 재취업도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나에게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올 12월이면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조기 취업 1년이 경과되어 고용보험공단에서 주는 조기취업수당 800여만 원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장님의 배려로 OOOOO대학에 출강하여 전기를 가르치는 겸임교수를 겸하고 있어, 지금이 더 발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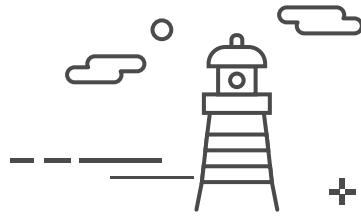
이렇게 성공적으로 인생2모작을 할 수 있게 결정적으로 도움을 준 것은 바로 워크넷의 취업알선장 이었다. 내가 아무리 자격증과 기술이 있다고 하여도 워크넷이 없었다면 지금의 회사에 취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워크넷이 우리나라의 취업전문 사이트로 자리매김하여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취업에 더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워크넷이 다 해결해 준다는 관념은 버려야 할 것이다.

취업의 지름길은 먼저 자기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조건(자격증, 경력, 기술 등)들은 평소에 본인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는 갖추어 놓고 난 후 워크넷의 문을 꾸준히 두드린다면 보다 쉽게 취업의 문이 열린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재취업의 기회를 준 워크넷에 깊이 감사를 드린다.

워크넷 취업성공수기
우수상



‘내일은 또 뭐하지.’ 그 고민을 해결하다.

“내일은 또 뭐하지..... 휴.”

잠들기 전에 또다시 중얼거리게 되는 혼잣말, 그리고 절로 나오는 한숨.

어느덧 비자발적 백수가 된지도 1년.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 실업을 했고,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준 실업급여 수급마저도 이미 반년 전에 끝났다.

매일 반복되는 취업사이트 뒤지기, 이력서 쓰기, 그리고 탈락의 고배 마시기.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취업시장의 상황은 좋지 않았다. 아니, 더욱 악화되고 있었다. 그렇게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고 싶었지만 구직상황은 출다 못해 꽂꽂 얼어버렸다.

‘...그래도 언젠가는 날 알아봐주는 곳이 있을 거야.’

그렇게 나 자신을 애써 다독였지만, 그러기엔 1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다.

하루를 마감하며 침대에 누울 때마다 어김없이 떠오르는 머릿속 질문도 싫증났다.

‘내일은 또 뭐하지?’

싫증날 수밖에 없었다. 답은 정해져 있었으니까. 구직활동 외에는 없었다.

알면서도 정해진 답으로 나 자신을 질책하기만 하는 우울한 연속의 나날들이었다.

띠링-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늦은 오전에 비척비척 일어나 토스트를 먹던 중 낫선 번호로부터 문자메시지 한 통이 날아 왔다.

[XX인력개발센터] 스타트업/예비창업자 대상 지원프로그램 운영자 구인

이게 뭐지? 받아든 문자의 내용은 조금 당황스러웠다.

일단 [인력개발센터]라는 곳이 뭔지도 몰랐거니와, 내가 구직하거나 지원했던 기억이 없는 정보였다. 그래서 나는 곧바로 문자메시지를 삭제하려고 했다. 그저 스팸메시지이겠거니 싶었으니까.

그런데 메시지 내용 중 눈에 띄는 마지막 문장이 있었다. ‘취업상담사 XXX’와 함께 덧붙여져 있는 한 전화번호. 그날따라 그 문장이 이상하게 내 눈길을 끌었다.

“.....”

나는 토스트를 마저 먹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몇 분간의 고민 끝에 그곳에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다. 밀저야 본전이었으니까.

한 번 속는 셈치고 들어본 후, 마음에 안 들면 끊어버리면 되지. 어차피 나 역시도 구직 중이었으니까! 무엇보다, 구인 장소가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꽤나 가깝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전화번호를 클릭했다.

“...여보세요?”

그렇게 약 20분 정도의 통화 후.

나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다름 아닌 내게 구인 정보를 보낸 곳이 고용노동부 워크넷의 취업연계 시스템이었기 때문이다.

곧바로 기억이 떠올랐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워크넷에 내 이력서를 업데이트 해 두었던 기억이! 바로 그 이력서를 보고 워크넷 채용 연계 담당자분이 내게 일자리를 제안해주셨던 것이다. 바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였다.

민간 구직사이트에서만 구직이 가능한 줄 알았던 내게, 공공기관에서 전해준 구인 정보는 놀라웠다. 신기하게도 전 회사에서 맡았던 직무와 연결되는 업무라서 나의 커리어를 활용하기에도 좋았다.

그 이후 나는 취업팀 분과 몇 번 더 통화를 나눈 후, 구인 회사에 서류를 접수하고 면접 날짜까지 받게 되었다. 일사천리였다.

“안녕하세요?”

단 일주일이었다. 구인 회사에 가서 직접 대면 면접을 본 기간이 일주일이었다.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면접을 마친 후, 면접 담당자분께서 약 1시간가량 회사 투어를 해주셨다. 친절함 응대에 괜히 기분이 좋고 우쭐해졌다.

그리고 내게 친절하게 회사투어를 해주셨던 면접 담당자분은 현재 내 부장님이시다.

그렇게 나는 1년 만에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다.

워크넷의 취업 연계를 통해 그토록 원하던 경제활동인구에 속하게 된 나!

아침에 일어나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는 그 소소한 기쁨은 내 삶에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더 이상 ‘내일은 또 뭐하지?’라는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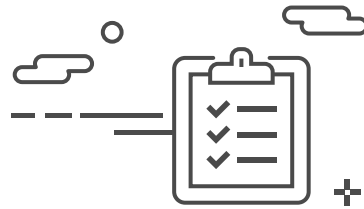
한때 워크넷은 내게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단계 하나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아니다. 워크넷은 내게 재취업의 기회와 삶을 풍요롭게 해준 정말 소중한 복지이다.

현재 나는 이메일로 워크넷의 뉴스레터를 정기적으로 받아보고 있다. 취업과 관련한 정보뿐만 아니라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까지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그 덕분에 나는 ‘구직 성공’뿐만 아니라 ‘워크넷 취업성공수기 공모전’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수기를 쓰며 그 당시의 일을 다시 한 번 회상해 보고 있다.

1년 동안 잠들어 있었던 나의 커리어를 깨워준 워크넷에 정말 고마울 따름이다. 여전히 코로나 상황은 지속되고 있으며 구직시장은 녹록치 않다. 이 어려운 시기에 취업의 꿈을 이루게 해준 워크넷의 청년 고용 연계 프로그램은 그 자체로 내게 가뭄의 단비이다.

나 같은 구직자 혹은 재취업자들이 워크넷의 고용 연계 프로그램을 꼭 알았으면 좋겠다. 자신의 직무를 펼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무궁무진하고 다양하다. 나라에서 지원해주고 이끌어주는 이 시스템이 여기저기 널리 홍보되어야만 한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이 힘든 상황에서도 조금이나마 희망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워크넷 취업성공수기 장려상



조급하기보다는 재정비하는 시간으로 활용하기

코로나의 직격타를 입은 공항에서 근무하던 나는 입사한지 350일째 되는 날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다. 예상하고 있던 일이라 크게 놀라지는 않았지만 15일차이로 퇴직금 수령이 불가하다는 점이 너무 아쉬웠다. 실업급여로 위로를 받으며 다음 단계를 위해 준비하고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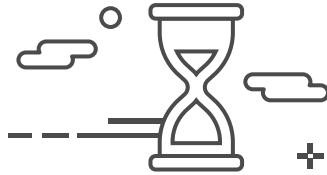
대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해서 3년 동안 쉬지 않고 계속 직장생활을 해온 나에게는 어쩌면 강제적으로라도 쉴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었다. 퇴사 후 한 달은 자취하던 방도 정리하고, 짐을 싸서 본가로 내려가 엄마가 차려주시는 밥을 먹으며 쉬는 시간을 가졌다. 마음속으로 세 달 정도는 쉬어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지만 반년이 지나도 계속 쉬고 있는 내 모습에 허무하고 무기력해졌다.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을 하고, 원하는 분야를 추려 AI추천으로 꾸준히 알람을 받으며 화면만 쳐다보던 나에게 부모님께서 “괜찮다. 조급해하지마라.”라고 하시는데 울컥

눈물이 났다. 매일 하는 일 없이 집에서 먹고 자고 더군다나 코로나로 밖에 외출도 못하는 상황에 있으니 내 자신이 쓸모없게 느껴지고 위축되며 너무 숨 막혔다. 하루라도 더 빨리 취업을 해서 부모님 걱정도 덜어드리고 나도 당당하게 살고 싶은데 왜 직장이 없다는 이유로 사람이 기가 죽는 것인지 안타까운 현실에 마주한 나는 아침저녁으로 자기소개를 수정하고 검토하며 이력서에 한 칸이라도 더 채우고 싶은 마음에 어학공부도 계속 하며 스스로를 달랬다. 지원서를 여러 곳에 제출을 하며 기다려도 아무 소식이 없어, 혼자서 이 모든 공고들이 거짓인건가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이 지쳐있었다. 하루 종일 컴퓨터, 핸드폰 앱을 붙잡고 있는 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후 나는 시간을 정하기로 했다. 매일 아침 규칙적인 시간대에 일어나 하루 시작하기, 낮에 동네 산책 다녀온 후 컴퓨터 앞에 앉기, 저녁 이후에는 방해금지 모드로 전환을 해두고 충분히 쉬기, 주말에는 신경 쓰지 않고 자연과 가까워지기 등 일과를 정리해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기 시작했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니 자기소개서에 작성하는 항목들도 새롭게 보이고 내가 원하던 분야 이외에도 다른 분야로 도전해볼 용기가 생겼다. 해왔던 분야가 아닌 해보고 싶은 분야에 다양하고 지원도 해보고 소식이 없어도 좌절하지 않고 또 새로 지원하다보니 8개월의 휴식기를 끝내고 취업을 했다.

이전까지는 사실 워크넷이라는 사이트 보다는 잡000나 사00을 통해 많이 검색도 하고 지원도 더 편리해서 자주 사용을 했는데, 이번에 장기적으로 취업 준비를 하다가 느낀 점은 다른 구직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공고가 워크넷에는 있었고 공고 상세설명이나 항목들이 더 자세하게 이루어져있어서 구직자에게는 조금 더 신뢰가 가는 사이트로 기억이 남는다.

이번 구직활동 기간에 내가 가장 많이 활용했던 것은 워크넷 AI추천이었다. 내가 검색하는 분야를 자동으로 분석해서 새로운 공고가 올라오면 추천을 해주는 기능인데 AI추천 기능으로 내가 몰랐던 기업들을 알게 되고, 놓칠 수 있었던 공고들도 놓치지 않고 지원할 수 있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워크넷은 학교에서 적성검사, 심리검사 등 온라인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전문가가 학교에 와서 결과를 보며 같이 상담해주는 그런 사이트로 알고 있을 것이다. 이번 구직 기간에 워크넷에 대해 더 만히 알게 되었고, 현재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동생에게도 워크넷을 알려주며 많이 활용하라고 추천을 해주었다. 앞으로 더 많은 구직자들이 워크넷에 다양한 기능을 알고 자신에게 맞게 잘 활용해서 취업의 길로 걸어갔으면 좋겠다.

워크넷 취업성공수기
장려상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면 길이 보인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만 62세 남자로 한국나이로 금년에 64세입니다.

과거 20여년의 직장생활을 주로 해외영업과 해외구매를, 이후 10년 동안 국내회사 및 다국적기업을 위한 번역사 역할을 해왔습니다. 작년 2020년 코로나로 경제생활이 어려워져 구청의 공공일자리사업에 용기를 내어 지원, 3개월간 지역아동센터의 주방보조 그리고 4개월간 이면도로순찰 업무를 파트타임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이 7개월 동안 내 주변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고 사회와 지역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비록 몸은 좀 고되더라도 가정에 도움이 된다는 희열과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금년 1월 이마저도 조건제한에 걸려 지원이 불가하게 되어 평소 PC에서 이용하던 워크넷을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워크넷 앱을 휴대폰에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마음을 내려놓고

사무직이나 판매직은 거의 지원이 불가하니 생산직으로 도전하되 서울권을 우선으로 하고 정 안되면 경기권까지 찾아보기로 하였습니다.

과거 워크넷에 저장해 둔 이력서를 간소하게 수정/보완하여 작년 구청 일자리사업을 강조하고 먹물인생도 체력과 정신이 따라주면 충분히 책임감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다음 며칠 동안 워크넷 앱을 뒤져 통합기업정보, 테마별 채용관을 찾았으나 나이가 문제였습니다. 여성들은 오히려 식당, 판매업, 공장생산직에 유리하였으나 남성들에겐 거의 접근불가 영역이었습니다.

포기수준으로 가다가 1월 20일경 그렇다면 ‘고령자 (우대)’란 주제로 접근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머리를 스쳐 지나가 집중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 중 공장 생산직을 모집하는 회사가 나왔는데 충청권에 있는 플라스틱사출 공장, 경기권의 식품공장 등은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여 연락해 보았더니 여성 위주로 모집한다고 하였습니다. 에휴~.

또 한 군데는 찹쌀떡 제조공장 생산직으로 서울에 소재하였는데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 45시간 근무여서 괜찮다고 생각하여 1월 말에 지원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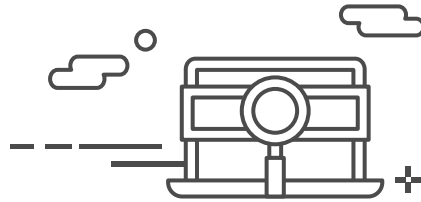
다음날 면접보라고 하여 갔더니 대표와 생산팀장이 배석하여 걱정스러운(?) 말투로 평생 사무직에만 있던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냐고 하길래, 작년 구청 일자리사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하루도 빠짐없이 책임감있게 완수한 사실을 힘주어 말하며 과거는 이미 내려놔고 아직 체력과 정신력은 살아있으니 채용해 주시면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명절 시즌이 가장 바쁜 시기인데 바로 시작할 수 있겠냐고 하여 2월 1일 부터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바로 그 다음날 생산팀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같이 한번 해보시지요?!”.

그 채용광고에서 결국은 나만 1명 채용되었는데 워크넷 담당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힘든 시기가 지나고 두 번째 월급을 받았습니다. 워크넷은 다른 잡포털사이트에 비해 전혀 손색이 없이 짜임새 있게 잘 구성되어 채용기회를 바로 찾을 수 있더군요. 특히 모바일앱에 있는 마이페이지 항목들은 나와 같은 오갈데 없이 나이 제한에 걸려

있는 남자들에게 체계적으로 정보를 저장하고 바로 열람할 수 있는 구세주와 같은 희망을 주었습니다.

대학을 나오고 사무직에서만 근무하였지만 지금 이 나이에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현재 생활을 잘 이끌어가고 내 능력껏 힘 닿는데까지 노력하여 집안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어
같이 행복해지는 것 만큼 이 힘든 시기에 더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남의 눈치가 신경이 쓰일
수 있겠지만 발상의 전환 차이 겠지요. 생산직이든 경비직이든 본인이 당당하고 즐겁게 일하고
밥벌이 하는 사람, 특히 남자들에게 우리는 박수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워크넷 취업성공수기
장려상



“워크넷을 두드려라. 그러면 취업문이 열릴 것이다!”

제 꿈은 프로 요리사였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만든 요리를 맛있게 먹을 때마다 기분이 좋고,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요리사로 평생을 일해 왔는데 해가 갈수록 경기 악화로 요식업 일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느끼던 찰나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 19 바이러스까지 닥치면서 대면접촉의 위험이 높은 식당업계는 그야말로 도미노처럼 줄줄이 쓰러져 폐업하는 곳이 속출했습니다.

제가 일하던 정육식당도 손님이 없어 장사를 못 하다 보니 폐업을 하였고, 저는 줄지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지라 당장 먹고 사는 게 걱정되어 급한 마음에 직업 소개서를 찾아가 한 달 회원비를 내고, 식당으로 파출일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일자리 마저도 코로나 19 여파로 한 달에 받은 집에서 쉬어야 했고, 그나마 일자리가 있어도 집에서 먼 거리거나 시간이 짧은 파트타임 뿐 이 었습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이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고 싶은 간절한 심정으로 워크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구직신청을 등록하였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일자리를 검색하면서 워크넷 입사 지원을 하였고, 워크넷 입사 지원이 안 되는 곳은 직접 전화하여 면접을 보러 다녔으나 확실히 나빠진 경기 탓에 경력자를 원하지도 않았고, 급여와 대우는 낮기만 하여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허탈하고, 절망감까지 들었습니다.

코로나 19 충격과 무섭게 얼어붙은 경기를 온몸으로 체감하면서 매일 워크넷에 들어가 애타는 마음으로 채용정보를 보고 또 보았습니다. 그렇게 워크넷 채용 공고를 매일 검색하면서 보고 있자니 노인 요양, 노인 돌봄, 노인 간호와 관련된 일자리 공고는 매일 다양하게 올라오고, 또 많은 사람들을 채용 한다는걸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노년층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곧 초 고령 사회를 눈앞에 둔 현실을 반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저의 현재 심리와 맞는 직업은 무엇이며 노인 요양 분야 쪽 일과는 잘 맞을까? 궁금해졌습니다. 워크넷 홈페이지에 있는 직업·진로를 누르면 직업 심리검사가 총 19종이 있는데 성인 대상 심리검사는 총 12종 이 있습니다. 그중 저는 직업 선호도 검사 S형과 창업적성 검사를 받아 봤습니다. 검사 결과 저의 흥미 코드는 < ES >로 여러 분야 중 사람들과 교류하고 협력하는 일을 좋아하는 사회형과 목표를 정하고 성취하도록 이끄는 것을 좋아하는 진취형이 높게 나와 신기했습니다.

사실 제가 주위 사람들을 가르쳐서라도 목표를 세워 달성하는 것을 추구하는 성향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워크넷에서 구직활동과 직업 선호도 검사를 하면서 더 늦기 전에 사회 흐름에 따라 노인 분야 쪽 직업으로 취업을 바꾸자 결심을 하며,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해 용기를 내어 간호학원에 등록하였습니다. 학원에 오신 분들 연령대를 보니 20~30대의 젊은 분들은 적었고, 생각 외로 저처럼 40~50대분들이 많았습니다. 각자의 전 직업을 들어보니 과외선생님, 회사원, 커피숍운영, 요양보호사 등이었으며 모두의 공통점은 100세 시대로 수명은 늘어나는데 불안한 경기상황 속에서도 오래 일할 수 있는 안정된 직업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공부도 다 때가 있다고, 마흔이 넘어 아르바이트와 공부를 병행한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수입이 줄다 보니 언제부터인가 여기저기 보험대출을 받아 생활비를 쓰게 되었고, 곧 시험을 보면 바로 취업을 할 때까지 조금만 버티자며 스스로를 위쪽으로 하며 불안감을 달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21년 취약계층 대상 <구직 촉진 수당> 뉴스 기사를 보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온라인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였습니다. 올해 2월 고용센터에서 구직촉진수당 자격대상자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는 이제는 살았다는 안도감에 뜨거운 눈물까지 맺혔습니다. 그동안 혼자 계획하고 전전긍긍했던 취업 문제를 고용센터 전문 담당자 선생님을 만나 심층 상담을 받으면서 워크넷에 등록한 이력서를 다시 수정도 하고 보완도 하였습니다. 또 함께 취업 활동 계획을 세우면서 취업 지원 프로그램과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방법 등을 안내받고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용센터에서 취업 상담 및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받으니 마음이 안정되고, 든든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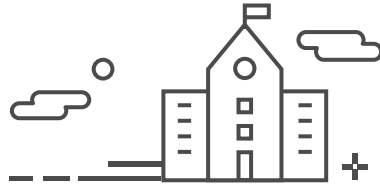
덕분에 올해 3월 13일 시행된 국가 간호조무사 자격증 시험에서 고득점으로 합격을 하였습니다. 저는 미리 워크넷으로 여러 요양병원에 인터넷 입사 지원을 하였기에 제 이력서를 보고 인천에서 가장 큰 요양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미리 면접을 보았고, 현재는 당당하게 취업하여 간호조무사로 큰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근무하며 제2의 취업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망막한 현실에서 앞이 보이지 않아 좌절과 낙담도 많이 했었지만, 꾸준히 워크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일자리를 찾고, 정보를 찾았던 노력이 취업의 결과로 돌아온 것 같아 기쁘기만 합니다.

저에게 워크넷은 현실의 흐름을 한눈에 보여주며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취업 사이트 이자 상담을 하여 나와 맞는 일자리를 정확히 찾아 나아갈 수 있는 등불이며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처럼 마흔 중반 나이에 취업을 하고 싶어도 용기를 못 내시는 주부님들과 또한 직업에 오래 종사하셔서 새로운 직업으로 변경을 주저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워크넷을 두드려라. 그러면 취업 문이 열릴 것이다!”

워크넷 취업성공수기
장려상



60세 넘은 나이에 재취업을 하다.

저는 1960년 9월생으로 농촌에서 태어나 중학교과정을 마쳤지만 고등학교 진학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년간 농사일에 전념하였다가 틈틈이 공부하여 1980년 8월에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에 합격하였습니다. 늦게 시작한 공부는 흥미를 느끼게 하였고, 특히 인문사회계열을 학습할 때 정말로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하였고, 법학계열 공무원에 도전하였지만 번번이 낙방하였습니다. 공부하고 있는 가운데 결혼을 하고, 이후 도시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취업을 위한 자격증 공부를 시작

제가 거주한 곳은 대구시 OO동 OO대학교 근처였습니다. 그때 방송통신대학생들은 OO 대학교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었으므로 그곳에서 열심히 공무원 수험서를 뒤적이는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딸인 OO가 1984년 3월에 태어났고, OO는 귀엽게 자랐습니다. 가장으로써 어머니와 부인 그리고 딸 OO를 부양해야할 책임감, 그때 저는 진로를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기술계 학원에 등록하고 열심히 공부한 결과 1985년 1월 5일에는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열관리기능사2급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전선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고, 일자리를 찾은 결과 경상북도 안동에 위치한 OO병원 보일러실에 임시직으로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임시직으로 취업하면서 기술을 연마하고 있을 때 OO교도소 기능직 9급 기계원 모집 공고가 있었고, 모집에 응시하여 합격하였습니다. 1987년 6월 26일 기능9급 기계원을 시작으로 1989년 12월 5일 기능8급 기계원, 1998년 12월 5일 기능7급 기계장, 2013년 7월 29일 기능6급 기계장, 2013년 12월 12일 기계운영주사, 2016년 12월 30일 공업주사로 근무하였으며, 2019년 12월 31일 공업사무관으로 명예퇴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명예퇴직 이후 새로운 자격증에 도전

32년 6개월간 기술직으로 근무하는 동안 1994년 4월 11일 위험물기능사2급, 2012년 2월 22일 평생교육사2급, 2017년 8월 4일 에너지관리기사, 2018년 2월 5일 진로적성상담사 1급·2급, 2019년 4월 19일 온수온돌기능사, 2019년 9월 20일 환경기능사 시험에 도전하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퇴직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막막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불안한 나머지 “OOOOOO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에서 실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교직원훈련과정에 등록하였습니다. 등록 후 학교에서 열심히 수업하였고, 2020년 1월 17일 수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2020년 2월 14일에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발급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건축시공3급, 소방3급, 산업안전관리3급, 냉동공조설비3급,

전기자동제어3급, 수질관리3급, 대기관리3급, 폐기물관리3급 토양관리3급, 환경서비스3급, 신재생에너지생산3급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그런데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는 전 세계가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대재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코로나-19’는 모든 사람의 삶의 전반에 걸쳐 많은 시련과 고통을 안겨 주었고, 명예퇴직이후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나에게도 혼자 있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노 팬티는 괜찮아도, 노 마스크는 안 된다.”라는 신조어가 생겼고, 마스크는 우리 몸의 일부가 되었으며, 코로나 시대의 통행 허가증이 되었습니다. 2020년 3월 9일 ‘마스크 5부제’가 시작되었고, 마스크를 배급받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날이면, 약국 문 앞에는 마스크를 살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현상은 직장 없이 집에서 놀고 있는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고, 일상은 무미건조하고 재미가 없었습니다.

지나친 욕심은 실패의 원인이 된다.

다시 취업을 해볼까?
나에게 어떤 직업이 어울릴까?
정년 이후에 할 수 있는 일자리는 어떤 것이 있을까?
누군가에게 도움 되는 일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취업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OOOO대학교
직업훈련교사과정을 수업하면서 알게 된 구직사이트 워크넷은 취업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워크넷은 자신의 적성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자격 및
지역단위로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2020년 2월 말경 워크넷을 검색 하던 중 OO
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지원 채용안내 재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채용분야는 ‘
혁신지원사업단’이었으며, 담당업무는 ‘국제교육원 및 교육혁신지원센터 관련 업무 운영 및
진행’으로 채용예정일이 2020년 3월 9일이었습니다. 전형방법은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으로

되어 있었으며, 내가 관심을 가졌던 분야였기 때문에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2020년 3월 1일
입사지원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이 때문인지 1차 서류전형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또한 2020년 3월 18일에는 OOOOO고등학교 ‘취업지원관’ 모집공고가
있었습니다. 담당업무는 “취업지원부업무지원, 취업처발굴, 현장실습관련업무지원”등으로
정말 나에게 적합한 일자리라고 생각하고, 입사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곳도 1차
서류전형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워크넷 구직사이트를 활용한 재취업에 성공

어디서 잘못되었을까?

다시 취업하기에는 나이가 많은가?

예전 직장수준과 비슷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곳은 찾기 힘들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내
눈높이를 낮춰 내가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믿고 일자리를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워크넷 채용정보 상세검색 키워드별로 일자리를 검색했습니다. 자주 방문한 워크넷은
홈페이지를 방문할 때마다 채용정보 뿐만 아니라, 직업·진로, 고용복지정책, 훈련정보,
인재정보 등 공채기업과 공공기관의 일자리 정보를 연계해 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주목할 만한 신 직업 목록도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워크넷은
자신의 이력서를 등록할 수 있고, 구인회사가 채용정보를 클릭만 하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자기소개서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2020년 7월 10일 워크넷 채용정보 상세검색 창을 검색하던
중 “OOOOOOO(주)”회사가 고속도로 청송휴게소 오수처리 관리원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았습니다. 채용조건은 환경자격증 소지자로 제한 되어있었습니다. 저는 환경기능사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자격조건이 되었습니다. 기회라고 생각하고 워크넷 홈 페이지에서
채용회사로 이력서 이메일보내기를 클릭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을까?

“OOOOOOO(주)”회사의 상무께서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 오후 면접에 임할 수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예, 됩니다.” 저는 정말 반가웠습니다.

“어느 곳으로 가면 되느냐?”라고 문의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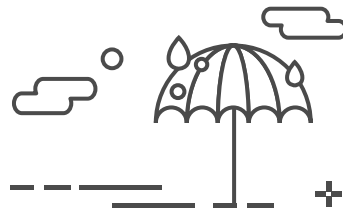
“오후 2시 청송휴게소 오수처리장에서 만나자.”라고 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안동에서 청송휴게소까지는 40km정도 되기 때문에 시간 내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찾아뵙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오후 1시 50분경에 청송휴게소 오수처리장에 도착하였고, “OOOOOOOO(주)”회사의 상무, 팀장께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면접 후, 합격통지를 받고 2020년 7월 20일부터 출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근무환경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2021년 1월 1일 청송휴게소 용역회사가 ‘OOOOOOOO(주)’에서 ‘OOOOOOO(주)’회사로 바뀌었지만 근무는 그대로 승계되어 정규직으로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직업의 멘토는 워크넷

우리 속담에“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혼자서 외롭게 구직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워크넷 취업사이트를 찾으십시오. 그러면 워크넷은 당신의 멘토로 다가올 것입니다. 취업불안과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버리십시오. 무엇보다도 자신의 경력과 조건에 맞게 선별하여 도전하기바랍니다. 그러면 시간 낭비를 없앨 수 있고,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미래는 먼저 준비하고 노력하는 사람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꿈을 가진다면 꿈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특히 정년퇴직으로 새로운 직장을 찾고 계신다면 여러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끈기를 갖기 바랍니다. 취업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생계, 보람, 배움의 즐거움, 인간관계 이 모든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워크넷 취업성공수기
장려상



옛말 같은 칠전팔기가 2021년에도 통하다.

안녕하세요. 37살이 청년이라고 하기엔 뭔가 부끄러운 지금 제 나이입니다.

제작년 퇴사 후, 반년 정도 쉬다가 가족에게 미안한 생각과, 자금난으로 취업을 문턱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1년 계약직으로 뽑는데도 면접관 7명과, 당황스러운 질문만 쏟아내던 한 협회 행정업무 담당자를 만만하게 생각했지만 결국 낙방하게 되었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지원했던 모 버스회사의 회계담당자 자리는 되겠지 싶어 기대하였지만 연달아 낙방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제작년 퇴사 후 반년간은 어찌나 노는 게 즐겁고 행복하던지요. 자연도 느끼고, 아직 벌어놓은 돈도 있으니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풍경들을 보면서 하루가 참 빨리 갔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반년이 지나고 나니, 제 자신이 나이도 너무 많이 들어버렸다는 생각과, 연달은 면접에서

압박 면적으로 인해 의기소침해진 제 심신상태와, 통장 잔고는 슬슬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뭐라도 해야만 할것 같았지만 코로나 시국 때문인지 아르바이트생을 뽑는 것 또한 무척이나 엄격하고 깐깐한 서류 전형과, 면접 때문인지 나날이 낙방과 자신감만 상실해 가던 중이었습니다.

거기에 수도권도 아닌 지방에서의 취업은 더더욱 힘들게만 느껴진 건 어느 구인 사이트를 들어가도 변변한 일자리라고 여겨지는 종목의 구인 광고는 없었습니다.

우선 일자리를 얻기 위해 어떤방법이 좋을까 생각하게 되었고, 각종 구인사이트에 등록된 제 이력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워크넷을 스마트폰으로도 접속이 가능하고 편리했기에 모바일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였습니다. 취업희망지역을 제 거주지역 인근으로 지정하였고, 제 이력서를 등록하면 관할 일자리 센터와도 연계가 되었는지 저에게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일자리 공고가 생기면 연락도 주셔서 참 감사했었습니다.

PC로 워크넷에 몇번 접속해보았지만, 바로 스마트폰으로 워크넷에 접속하여 위치 기능을 켜고 근처에 일자리 구인 글을 검색할 수 있는 편리함에 1~2주에 한번씩 꾸준히 접속했습니다. 참 편리하고 감사한 서비스입니다.

집안 사정으로 시골에 내려오게 되면서, 괜히 시골로 왔나 싶은 생각과, 지방에서의 일자리 난을 더욱 체감하게 되면서 그렇게 3달정도를 자기개발을 하면서 지내왔고 동네 벼룩시장과, 알바X, 워크넷 모바일 서비스를 꾸준히 틈틈이 들어가서 정보 조사를 해 왔습니다.

마침 모바일 워크넷에서 인근지역의 협동조합 사무직 업무를 구한다는 공고 글이 있었고 "과연 내가 될수 있을까?" 라는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던 제 자신에게 무조건 하면 된다는 용기를 내어, "이번에 안되면 자격증 공부해서 취업하자!" 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입사지원을 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며칠 후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은 어릴적부터 여러 종류의 다양한 아르바이트와 병원 원무과의 행정직을 해왔기에 무리가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생소한 '협동조합' 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려움 때문에 면접을 보면서 면접관에게 이러 저러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면접관 중 협동조합의 경연진 한분께서 제 약력을 보시고는 용기를 주신 덕분에 면접 이후 며칠을 기다렸고, 간절히 바라던 최종 면접 합격을 하게 되었고, 전 지금 3달째 이곳에서 사무직 업무를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워크넷 모바일 서비스가 아니었으면, 전 아직도 취준생에 하루하루를 낙심하면서 시간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워크넷의 빠른 구인정보 공고로 인해 입사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저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준 면접관 중 한분이 저희 ...이사장님이세요. 일주일에 한번은 꼭 사무국에 들려 맛있는 음식과, 커피 한잔을 하면서 업무보고를 하는 세련됨도 지니신 이사장님이세요. 성격은 시원시원하시고 사적으론 정도 많으셔서 직원들을 무척이나 아껴주신답니다. 고맙습니다. 워크넷. ...이사장님...



워크넷 고객센터 **1577-7114** 이메일 workmaster@keis.or.kr
평일 09:00 ~ 18:00 (주말, 공휴일 휴무)